

#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

2020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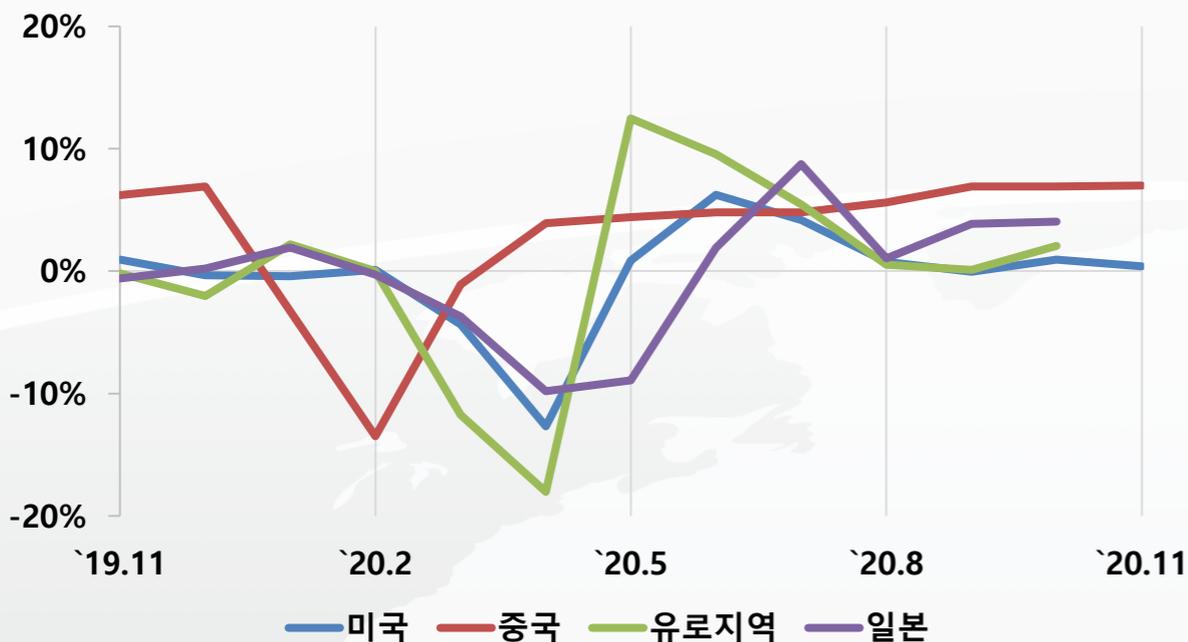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# 세계 경제동향

## 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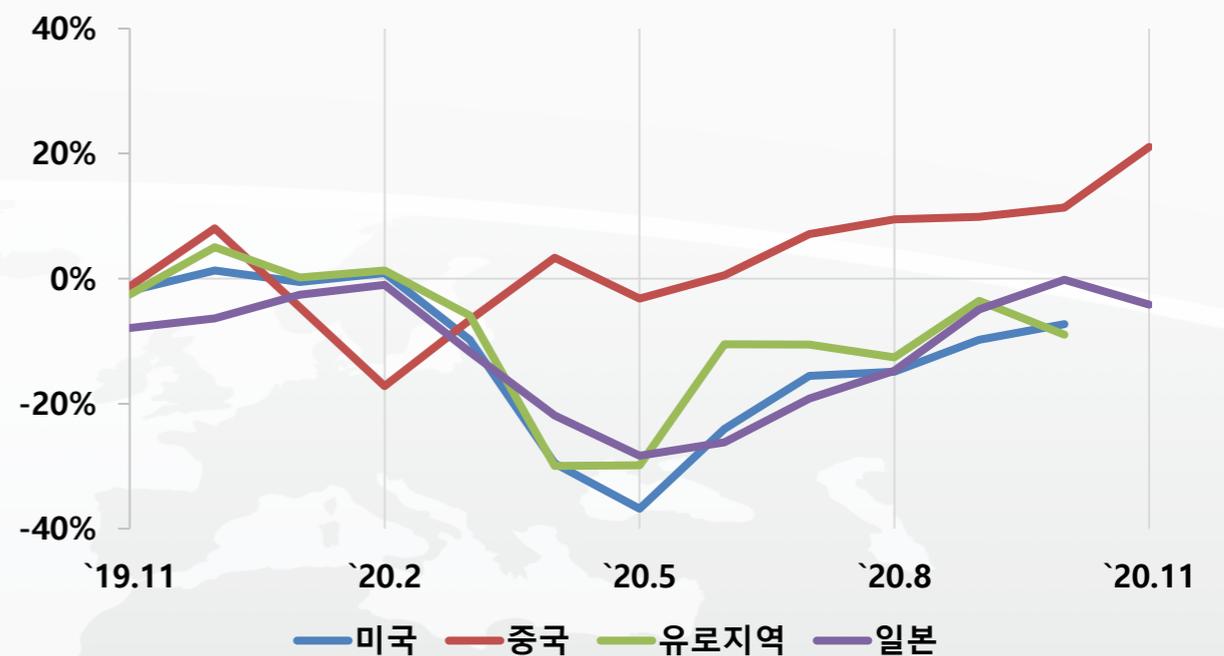
- **(미 국)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회복세 둔화**  
- 11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0.4%)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한편, 11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, △1.1%)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
- **(중 국) 생산·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견조한 증가세 지속**  
- 11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, +7.0%)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, 11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, +21.1%)도 큰 폭으로 증가
- **(유로존) 코로나19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 지표가 부진한 흐름**  
- 10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2.1%)은 소폭 상승하였지만, 11월 합성(제조업+서비스업)PMI지수는 서비스업(41.7)을 중심으로 하락 (50.0 → 45.3)
- **(일 본)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,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**  
- 10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4.0%)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, 11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 △4.2%)은 24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록

### 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.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
자료 : Bloomberg

### 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비계절조정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  
자료 : Bloomberg

# 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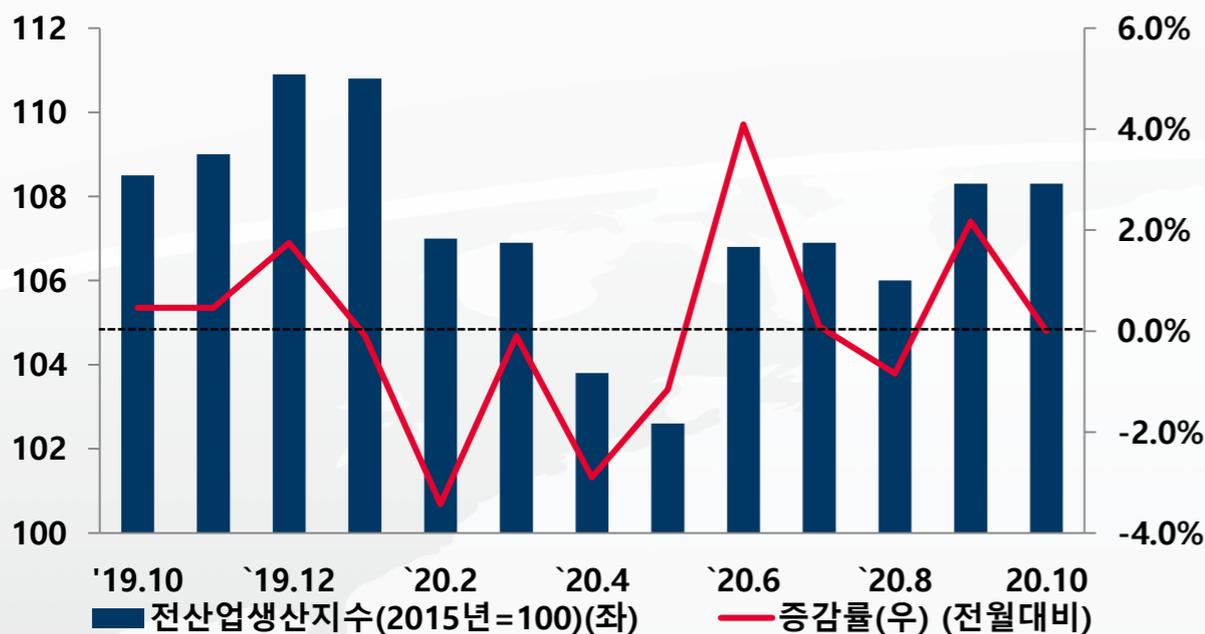
## ■ 산업 활동 : 실물경기 회복 둔화 (10월 기준)

- (생산) 10월 전산업생산(전월 대비, 0.0%)은 서비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, 광공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월 수준에 그침
  - (광공업,  $\Delta$ 1.2%) 화학제품(+3.5%)가 소폭 증가했으나, 전자부품( $\Delta$ 2.6%), 반도체( $\Delta$ 9.5%) 등을 중심으로 감소
  - (서비스업, +1.2%) 금융·보험( $\Delta$ 1.5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, 숙박·음식점(+13.3%), 정보통신(+2.6%) 등이 늘어 소폭 증가
- (경기)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3p)·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1.8p) 21년 만에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(기준치 100)

## ■ 수출 동향 :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전년동월 대비 4.1% 증가

- 11월 총수출 및 일평균 수출은 각각 458.1억 달러(전년동기대비, +4.1%), 19.9억 달러(+63%)로, '18.11월 이후 첫 동반 증가
  - 中·美·EU·亞 등 4대 시장에 대한 총수출·일평균 수출액이 플러스 성장하고, 15대 품목 중 반도체 등 10개 품목 총수출액이 증가
- \* 주요 품목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, %) : (반도체)16.9 (컴퓨터)5.6 (바이오헬스)78.5 (자동차)2.1 (디스플레이)21.4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#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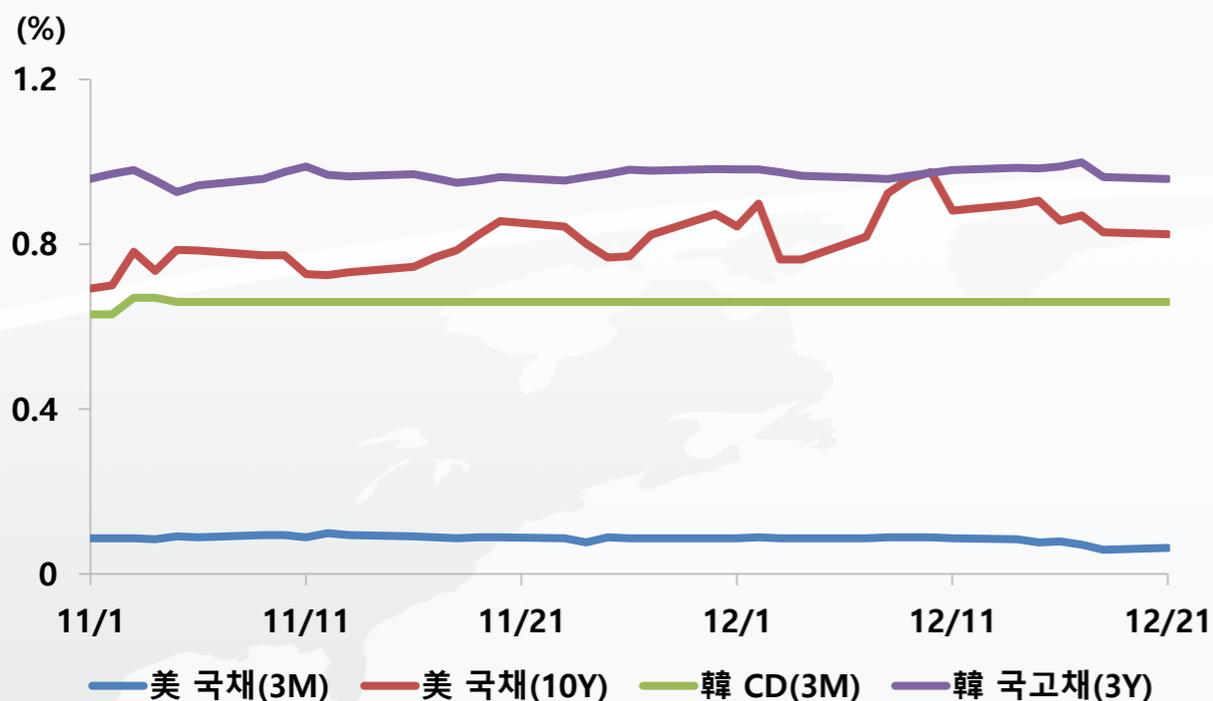
## ■ 금리 동향 : 백신개발 기대 ·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등락

- (미국) 월초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, 이후 협상 난항 및 FOMC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하락세
- (한국) 수급 우려 ·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 
- 국고채 3년물 및 10년물 금리 간 격차는 18일 74.5bp까지 벌어지며 2015년 6월 이후 최대치 기록

## ■ 환율 동향 : 코로나19 변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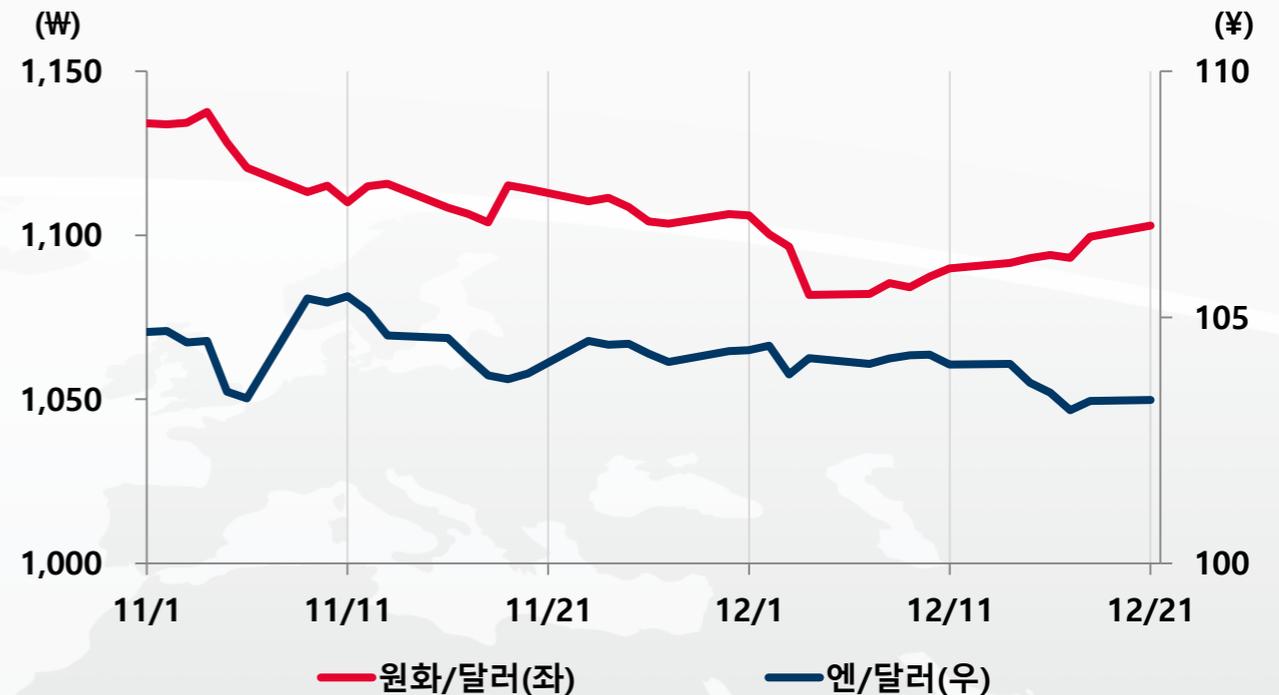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월초 큰 폭의 하락 이후, 한국의 코로나19 3차 유행 우려 등으로 상승하여 1,100원 수준 회복  
- 원/달러 환율(종가 기준) : (12.1)1106.1 → (12.4) 1081.8 → (12.10)1087.4 → (12.15)1092.9 → (12.21) 1102.9
- (엔/달러 환율)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(브렉시트 등) 및 美 경기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으로 엔달러 환율 하락

韓 · 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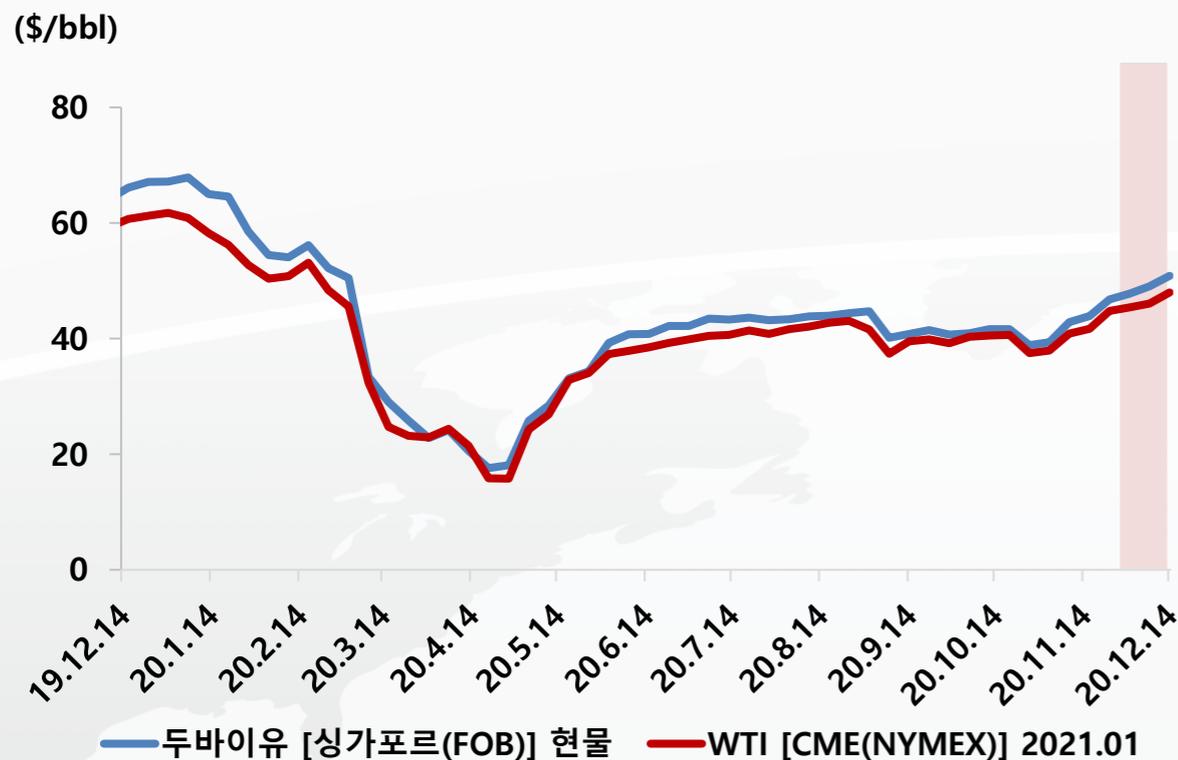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#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

## ■ 11월 이후 코로나 백신 기대감 등으로 유가 상승 지속, 가스 가격은 12월 중순 소폭 상승 전환

- (유가) 11월 중순 연내 백신접종 기대감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폭 둔화, OPEC+감산폭 완화 연기 가능성 등으로 7주째 유가 상승세 지속하며, 12월말 배럴당 50달러 초반대 기록 (12.21, 두바이유 50.23 \$/bbl)
  - 미국,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나, ①화이자·모더나 등의 백신 개발 기대감 상승
  - ②백신개발 및 미국 부양책 등에 의한 석유소비 증가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지속
- (천연가스 가격) 10월 말 이후 12월 초까지 재고증가, 온화한 날씨 예보에 따른 난방용 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가스 가격 하락 지속, 이후 소폭 반등하여 12월말 mmBtu당 2달러 후반대 기록
  - 12월 초 천연가스 재고 감소폭(전주대비 2.31% 감소)의 시장 예상치 상회, 백신개발 기대감 등으로 가격 상승 회복

### 국제유가 추이



###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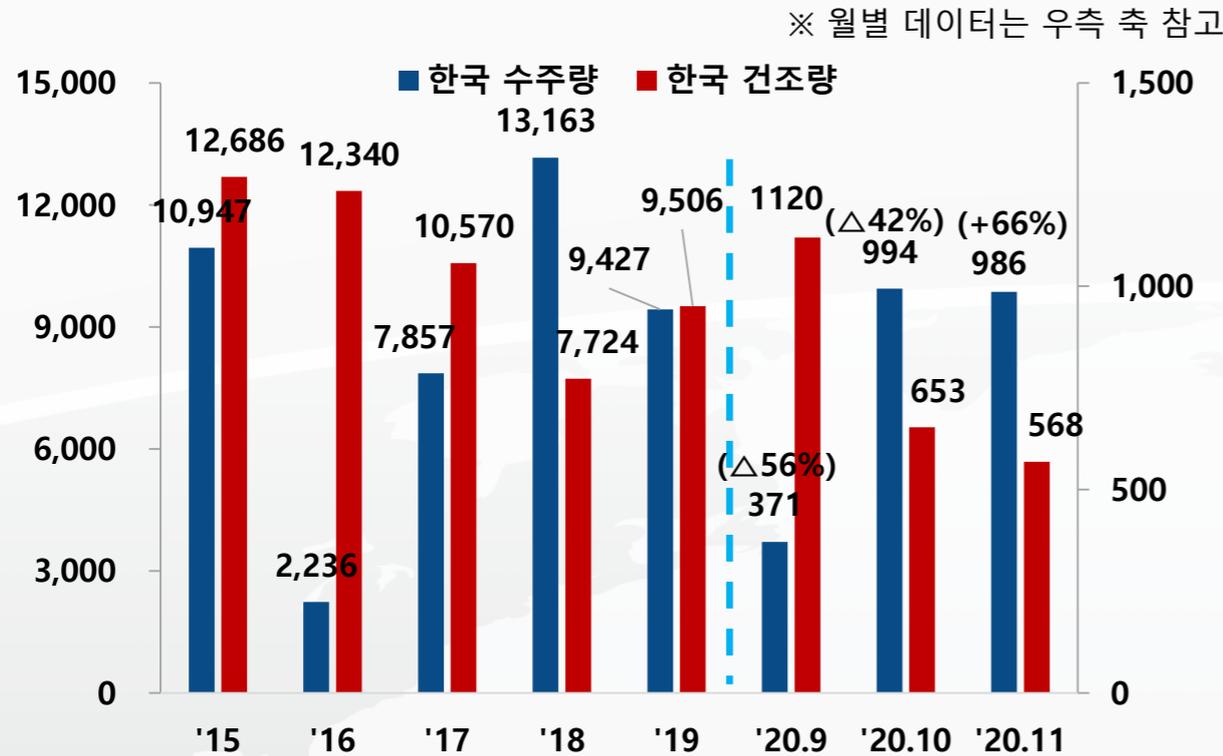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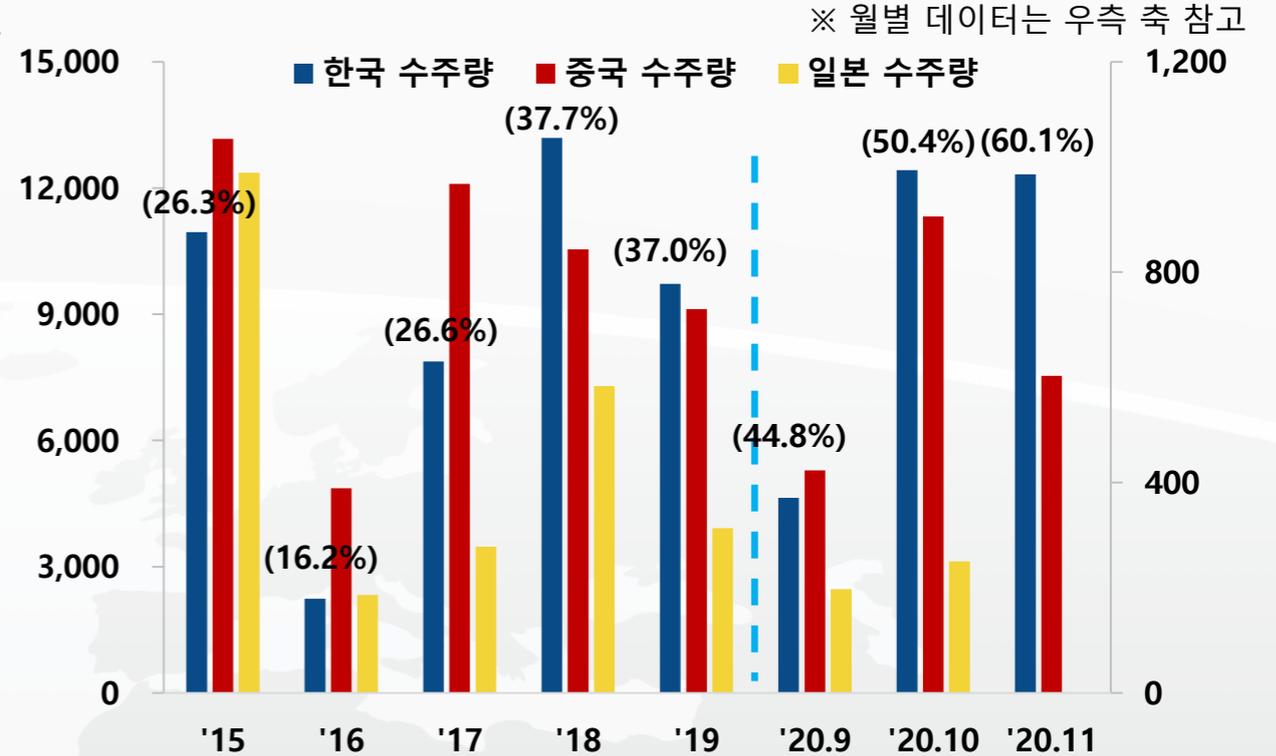
## 11월 수주는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등으로 개선세 지속

- 수주는 코로나19 이후 시황과 달리 월간 실적 기준으로 회복 수준을 나타냈으며 전월의 개선세를 이어감
  - 11월 수주량 99만CGT(전년동월 대비 66.2%), 금년 1~11월 누적 수주량은 502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36.2%)
  - 11월 수주액 20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6.8%), 금년 1~11월 누적 수주액은 116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36.6%)
  - 11월에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였으며, LNG선 1척과 나머지는 주로 대형 유조선 수주
  - 한국 신조선 점유율은 11월 누적 34.7%로 중국(46.1%)에 이어 2번째이며,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(CGT 기준)
-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부진
  - 11월 수출액 10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32.6%), 금년 1~11월 누적 수출액은 169.8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9.7%)

###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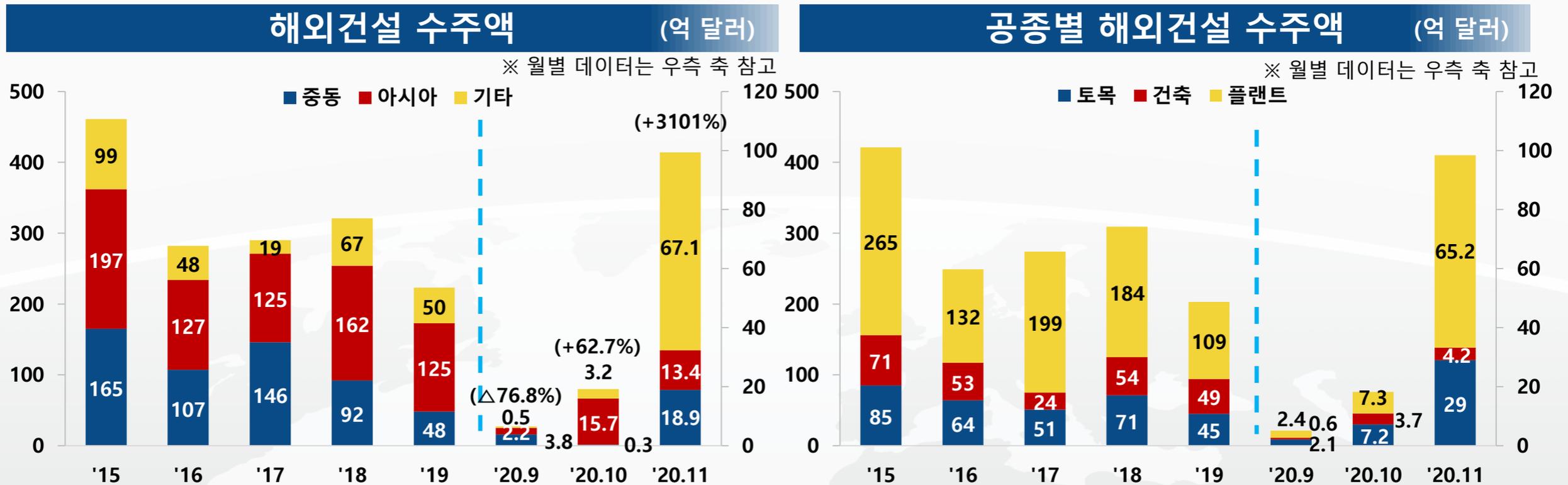


### 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

## 1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32배 증가한 99.4억 달러

-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의 경우 18.9억 달러, 아시아 13.4억 달러, 중남미 65.4억 달러 기록
  -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보카스 정유 프로젝트(36.5억 달러 규모) 및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(28.4억 달러 규모) 등 대형공사 수주
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65.2억 달러, 토목 29.0억 달러, 건축 4.2억 달러로, 전년동월 대비 전 분야 큰 폭 개선
  - 특히 플랜트 수주액은 대규모 정유 프로젝트 수주로 월별 기준 올해 최대 기록
-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분기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의 큰 폭 증가로 35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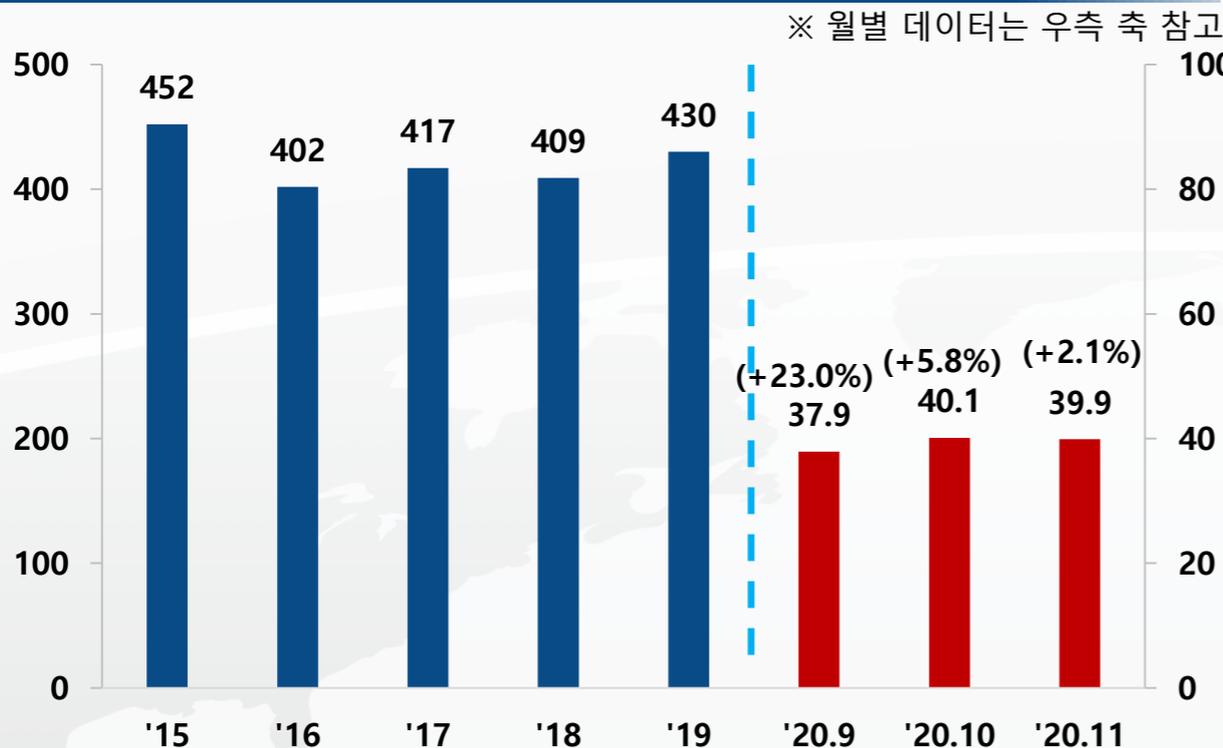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  
 자료 : 해외건설협회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## ■ 1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39.9억 달러, 18.8억 달러

-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.1% 증가했으며, 자동차부품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6.5% 증가
  - 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자동차 수출 증가로 3개월 연속 자동차 수출 증가
  -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및 중국 시장에서 완성차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월 대비 플러스 전환
- 4분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신차 수출 호조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긍정적·부정적 요인 혼재
  - 북미시장에서 신차 출시 효과가 지속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유럽의 재봉쇄 조치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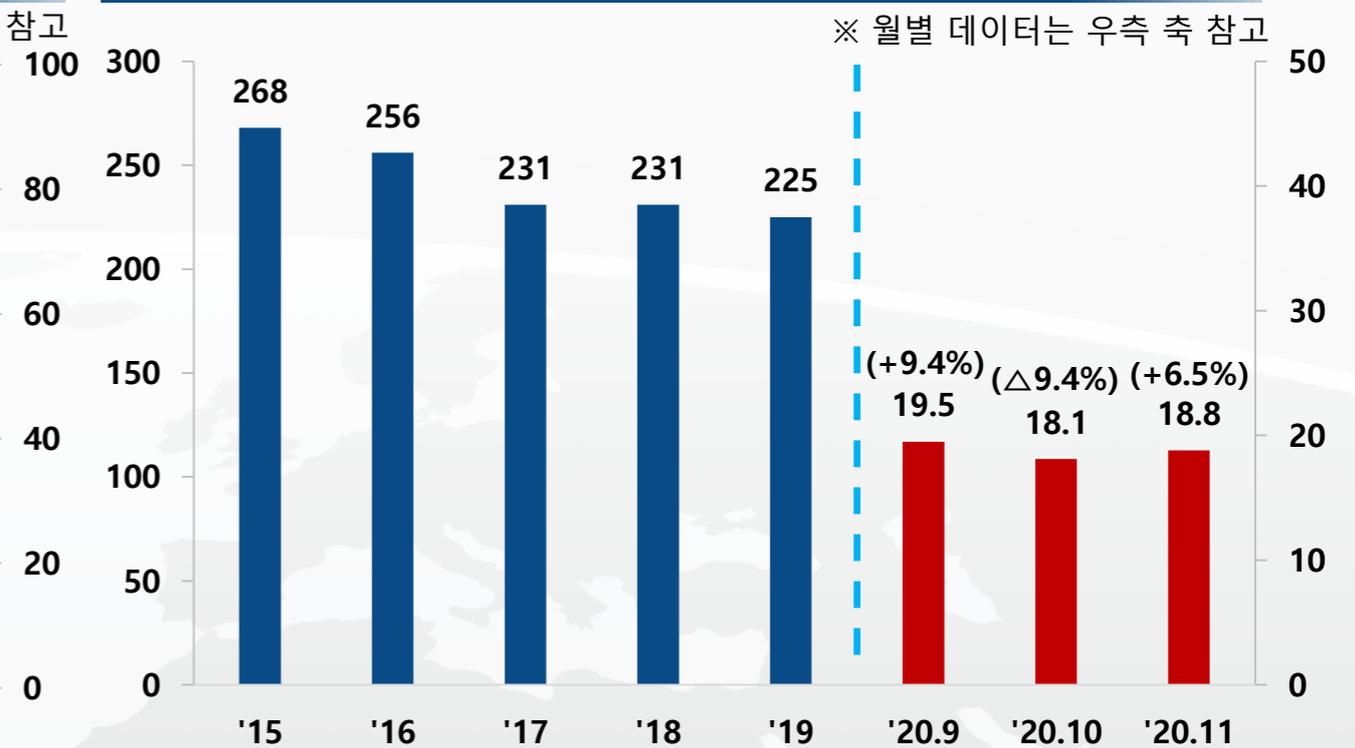
### 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### 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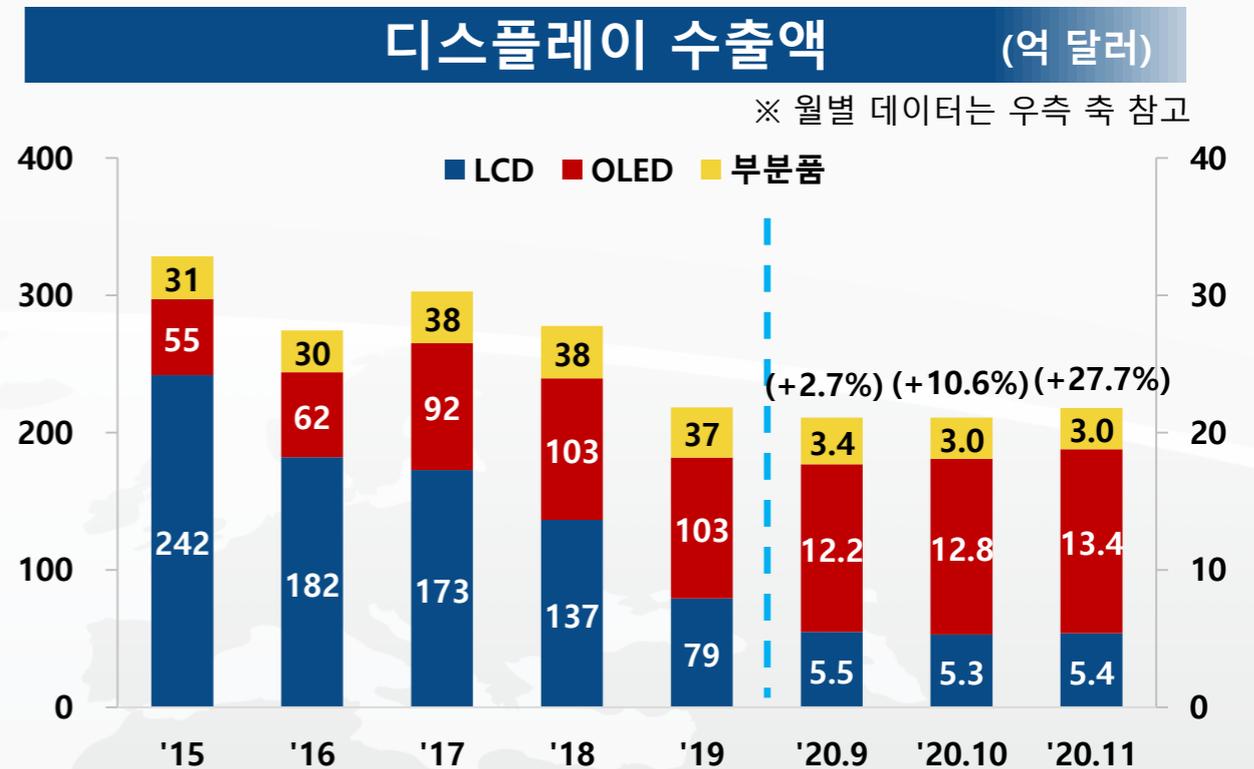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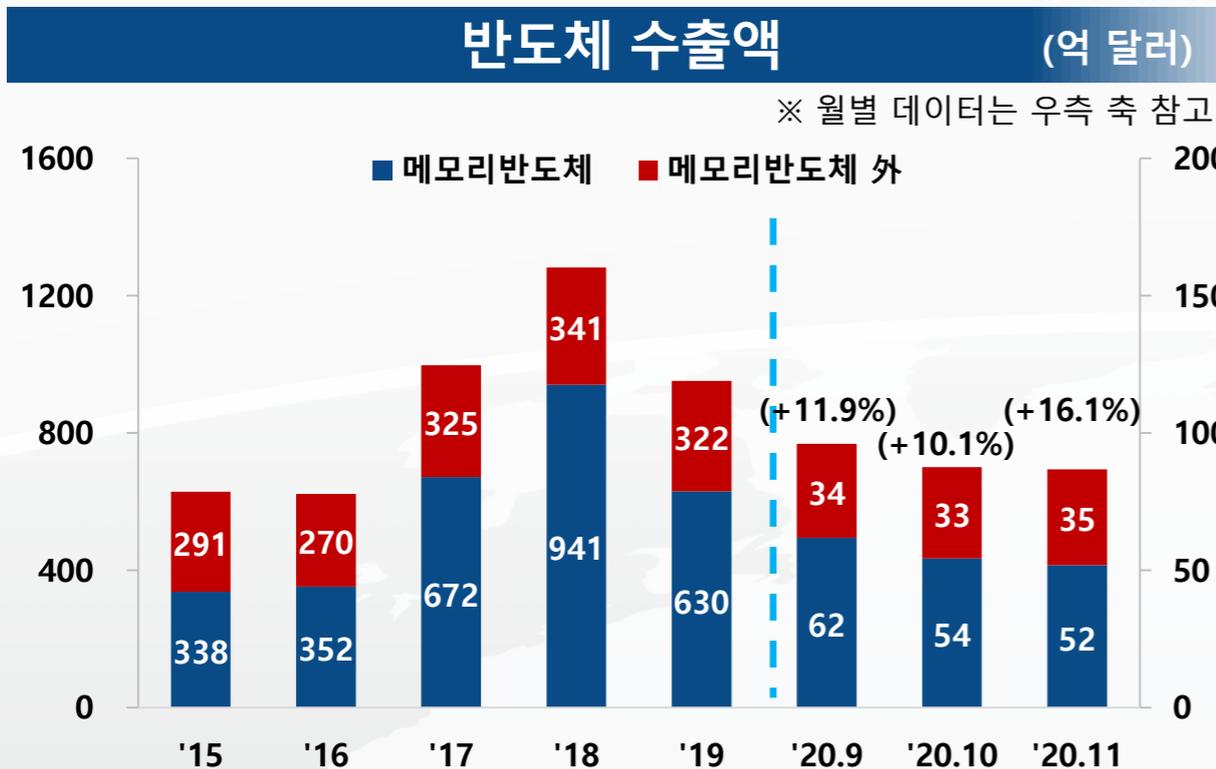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# 반도체·디스플레이

## 1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16.1% 및 27.7% 증가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6.1% 증가한 86.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개월 연속 증가
 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(아이폰 12 등)에 따른 모바일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3% 증가
    - \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)2.84 → (2)2.88 → (3)2.94 → (4)3.29 → (5~6)3.31 → (7~9)3.13 → (10~11)2.85 (D램익스체인지)
  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의 수요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39.2% 증가, 역대 최고 수출액 29.8억 달러 기록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7.7% 증가한 21.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개월 연속 증가
  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6.3% 증가하면서 2020년 월 수출 최대액(13.4억 달러)을 기록
  - LCD 수출은 노트북·TV 등의 수요 호조, LCD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.4% 증가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